

선진도서관에서 배운다(상) 독일 슈투트가르트 도서관

#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모두에게 열려있는 지식 쉼터

슈투트가르트=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최근 광주시장 직속 혁신추진위원회가 지역 공공 도서관의 역할과 비전을 담은 '문화도시, 광주도서관 정책 재정립' 혁신안을 발표했다. 현재 광주에는 2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주로 수험생들의 열람실로 운영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광주시는 2016년 말 폐쇄된 상무소각장 부지 3만1871㎡에 '광주대표도서관'을 짓기로 하고 9~10월 중에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계공모금액만 17억에 달하는 광주대표도서관을 문화수도를 상징하는 공공건축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잘 만든 도서관'을 통해 문화도시로 부상한 선진사례를 소개한다.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에서 20분 정도 걸다 보면 신도시를 연상케 하는 깔끔한 풍경이 펼쳐진다. 마일란더 플라츠(Mailander Platz)라는 지역이다.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도심과 달리 초현대적 디자인의 오피스 빌딩들이 드문 드문 들어서 있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정육면체의 큐브 모양을 지닌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Stadtbibliothek Stuttgart)이다. 4개의 벽면 위쪽에 독일어(북쪽), 영어(서쪽), 아랍어(남쪽), 그리고 한글(동쪽)로 도서관이라는 은빛 글씨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건물에 들어선 순간 이런 예상은 보기 좋게 깨진다. 로비에서 안쪽으로 몇 발짝 발걸음을 옮기면 마치 신전에 온 듯한 거대한 열린 광장이 펼쳐진다. 14m 높이(5개층)의 공간은 아무런 장식도 없는 순백의 텅 빈 공간으로 방문객을 맞는다. 로마의 판테온 광장을 떠오르게 하는 공간의 천장과 바닥 사이는 조명만이 환하게 비친다.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명상의 사원이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이 든다.

지난 2011년 개관한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은 교육·문화의 도시를 내건 시의 장밋빛 비전에서 탄생한 산물이다. 한때는 독일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서관으로 불렸지만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시민들을 위한 지식의 놀이터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99년 슈투트가르트는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도서관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내걸었다. 수백여명이 몰린 경이적인 경쟁을 뚫고 당선된 건축가는 다른 어떤 재독 한국인 건축가 이은영씨.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건너간 그는 아겐공대에서 학위를 딴 뒤 O.M. 옴어스의 설계사무소와 J.쉬어만 설계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은 실력파다.

그는 슈투트가르트 시에 출품한 설계안에서 중세와 근대도시에서는 공전과 교회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면 현대에는 도서관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서관은 공공의 장소인 동시에



새로운 지식을 공유하는 광장이자 도시생활에서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쉼터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씨는 로마의 판테온을 재해석한 독창적인 콘셉트를 내놓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도시의 정신적 중심지이자 심장(Heart) 역할을 하도록 내부를 명상공간으로 재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건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도서관의 4면에 영어, 독일어, 아랍어와 함께 동양을 대표하는 한글을 새긴 점이다. 당시 슈투트가르트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요구했지만 한글의 아름다움을 역설한 이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서관의 한쪽 벽 위에 한글로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내걸렸다.

45m 길이의 큐브 형태인 도서관(지하 3층, 지상 9층)은 지식과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를 건설하려는 아이디어에 중점을 두었다. 12년 간의 공사기간 중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도서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심장'이었다. 건립 부지 1만1000㎡에 자아성찰의 기능을 위한 공간과 미래의 디지털 세상에 대비하는 혁신적 멀티미디어의 장을 균형있게 배치하는 것이다. 전자를 위해 이씨는 도서관의 중심에 1층부터 4층까지 하나로 통하는 빈 공간을 만들었다. 도서관의 저층부에 자리잡은 이 공간은 지식의 근원을 상징하는 곳으로 조명 효과를 연출해 빛으로 충만한 느낌이 든다. 평소에는 텅 빈 상태이지만 종종 도서관 개관일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2011년 개관... 교육·문화 기능 강화  
이은영씨 설계... 로마 판테온서 영감  
독일어·영어·아랍어... 그리고 한글  
동쪽 벽면에 '도서관' 은빛 글씨 눈길  
'광주도서관' 프로젝트 벤치마킹 필요

연회장이나 갤러리로 활용된다.  
후자인 멀티미디어의 공간으로 차별화 하기 위해서 건축가는 도서관에 대충과 만남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RFID 시스템을 도입했다. 즉, 4개의 도서관 입구에 보안장치를 설치해 무단 도서관출을 방지하는 한편 대형자동분류기를 통해 24시간 반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도서관 열람실(5-9층)의 각층마다 120대의 노트북과 넷북을 인공지능선반위에 비치해 이용자가 회원가입으로 노트북을 빌린 후 400개의 좌석 중 원하는 자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의 전체 면적 중 절반 가량이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된 점도 특징이다. 실제로 1층 로비에는 컴퓨터와 디지털 안내대가 설치돼 있고 각 층마다 스캐너, 특수 소프트웨어



1 지난 2011년 개관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의 내부 모습. 재독 한국인 건축가 이은영씨가 국제현상설계공모에서 1등을 차지해 설계를 맡았다. <Stefan Muller-이은영 건축사무소 제공>  
2 도서관 동쪽 외관에 한글로 새겨진 '도서관'. 3 로마의 판테온을 재해석한 도서관의 천장 모습. 4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구 꾸며진 도서관의 자료실 내부.

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기 등 고성능 컴퓨터가 비치돼 있다.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풍성한 콘텐츠와 아카이브. 지하 3층에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당이 마련돼 연중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뭐니뭐니해도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의 압권은 순백의 내부 인테리어다. 모든 서가와 설치물, 가구들이 화이트 톤이어서 책과 사람이 도드라지는 느낌을 준다. 마치 깨끗한 캔버스 위에 다양각색의

책과 사람들이 공간을 화려하게 완성해나가는 분위기가.  
유럽의 내로라하는 북스티인 슈투트가르트는 도서관 개관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풍성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업그레이드시킨 동시에 CNN으로 부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선정돼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개관 8년 만에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은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독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 jh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 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 10% 할인
- 음료·주류 .....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